

스마트IT+고급+가성비 … ‘KT에스테이트’표 호텔 호황

안다즈 강남 등 높은 예약율
기기지니 등 다양한 신기술 접목
내년 완공 목표 호텔 기대감↑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하고 있는 KT에스테이트가 개발한 호텔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KT의 유후부지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 호텔들도 업계의 기대를 모은다.

KT는 관계사인 KT에스테이트를 통해 서울 시내 핵심 부지였던 전화국 자리에 호텔을 지어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 을지지사에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2019년 신사지사에 안다즈 강남 호텔을 오픈한 뒤 업계에 안착시켰다. 지난해에는 KT 송파지사 부지에 프랑스 호텔 체인인 아코르그룹 계열의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이 입점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1월 호텔 비수기 들어서도 주중(월~목) 40%의 객실 예약율, 주말(금~일)에는 70%에서 75%에 달하는 예약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보텔 동대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 전경.

시설에서는 KT의 기기지니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이 갖춰져 있어 더욱 편리하고 편안한 숙박이 가능하다.

호텔에 KT의 AI인 기기지니를 접목, 투숙객이 음성명령을 통해 객실 조명이나 가전을 제어하거나 AI로봇을 통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KT 기기인터넷과 IPTV, 기기지니를 포함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빌딩제어시스템, 월패드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제어, AI 주차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도 도입 가능하다.

여기에 하얏트, 아코르와 같은 기존 유명 호텔 체인에 위탁 운영을 맡겨 가성비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여가, 프랑스식 세련된 브랜드 등 적절한 마케팅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안으로 KT 서울 중앙지사에 르 메르디앙 서울 명동 및 목사 서울 명동 호텔이 문을 열 예정이다. 앞선 호텔들이 위기 속에도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면서 신규 호텔들도 기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에 따라 많은 부침이 있었던 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성과를 이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텔 앤더스 강남은 작년 12월의 경우 매주 말 및 공휴일마다 객실 예약이 일찍이 마감됐으며, 2022년 출발도 전년 대비 상승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도 객실과 F&B(식음시설), 연회장 예약 문의가 꾸준히 느는 등 성황리에 오픈을 마무리 지었다.

특급 호텔도 휴관에 들어가거나 폐업

하는 등 어려웠던 시기에 해당 호텔들이 활황을 맞은 것은 KT 측에서 부동산과 IT를 접목한 시너지 효과로 보인다. 호텔 앤더스 서울 강남은 3호선 압구정역과 바로 연결된 위치적 장점을 지녔다. 노보텔 동대문 호텔도 강북의 패션·문화 중심지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두 호텔 다 영화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각종 쇼핑몰을 근방에 끼고 있는데, 호텔 사업에 유리한 역할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두 호텔의 객실 및 부대

위메프

“오류지급 포인트 미회수”

16일 룰렛이벤트 오류 후속조치

위메프가 17일 시스템상 설정 오류로 참여 고객 전원에게 배포된 5만 포인트를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위메프 측은 “오류는 지난 새벽 약 40~50분간 설정 오류로 발생했다”며 “증정된 포인트는 전액 미회수를 결정했고, 향후 이와 같은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고객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날 0시부터 랜덤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룰렛 이벤트를 열었다. 그러나 새벽 2시 경 약 30~40분간 시스템상 오류가 일어나 이때 참여한 사람 전원에게 5만 포인트가 지급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류 사실이 돌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참여해 실제 5만 포인트를 지급 받은 사람의 수는 수백명 대일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롯데호텔, ‘L7’ 브랜드 美 시카고 진출… 내년 하반기 오픈

김튼 호텔 모나코 430억 인수
안세진 대표 “해외시장 공략 박차”

롯데호텔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김튼 호텔 모나코(Kimpton Hotel Monaco)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KIND(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와 공동 투자로 진행되었으며, 인수가는 약 3600만 달러(약 430억원)다.

입점 브랜드로는 롯데호텔의 라이프 스타일 호텔 브랜드 ‘L7(엘세븐)’으로 결정되었고, 내년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2016년 L7명동으로 첫 선을 보인 L



L7 시카고 부지(김튼 호텔 모나코). /롯데호텔

7호텔은 비즈니스 호텔 중심이었던 국내 호텔 시장에서 ‘라이프 스타일 호텔’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라이프 스타일 호텔이란 개성 있는 인테리어, 서비스 등으로 기존 대형 호텔과 차별화를 이룬 부티크 호텔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입점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을 추구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오픈한 에이스 호텔을 시작으로 뉴욕,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호텔 붐이 일었다.

라이프 스타일 호텔 브랜드의 본고장인 미국에 진출한 점에서 L7 브랜드의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한 롯데호텔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위탁 운영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카고의 도시 매력도 역시 L7 호텔 진출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다. 시카고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6000만명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미국 대표 관광

도시다. 최근 IT산업 육성 정책으로 스타트업 및 벤처 캐피탈이 급성장하며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건축, 문화, 재즈의 도시로 불리며 매력적인 로컬 문화를 간직한 시카고는 L7호텔이 진출하기에 최적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미국 동부 롯데뉴욕팰리스, 서부 롯데호텔 시애틀에 이어, 중부 대표 도시 시카고에 L7 브랜드가 진출하며 ‘K-호텔’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향후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HK이노엔 ‘케이캡’ 연간 실적 1000억 대기록

지난해 원외처방실적 1096억

국산 30호 신약 ‘케이캡’이 역대 최단 기간 내 연간 실적 1000억원 달성을 이루는 대기록을 지난해에 달성했다.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지난해 원외처방실적이 1096억원을 기록하며 출시 후 처음으로 연간 실적 1000억원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기록한 761억원 대비 43.9% 증가한 것으로, 이로써 케이캡은 전체 9500억원 규모(2020년 기준)의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됐다.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의 연간 원외처

방액이 100억원을 넘기면 통상 성공적인 시장 안착으로 평가 받는 단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10배인 1000억원 돌파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첫 출시된 2019년 이후 3년차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케이캡은 역대 출시된 국산 신약을 통틀어 최단 기간 내 연간 실적 1000억원 돌파라는 대기록도 함께 달성하게 됐다.

HK이노엔은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정제(알약)에 이어 입에서 녹여 먹는 제형인 구강붕해제를 새롭게 출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케이캡의 진출 범위가 넓어지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상추·시금치·깻잎 등 11종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키즈 식재료 브랜드 ‘아이누리’의 신제품으로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한 친환경 엽채류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 인증 기준을 준수한 친환경 상추, 깻잎, 시금치, 쫙갓 등 총 11종이다.

아이누리의 생분해성 포장재는 식물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폴리젖산(PLA) 소재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고 폐기 시 퇴비화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



CJ프레시웨이가 ‘아이누리’의 신제품으로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한 친환경 엽채류를 출시했다.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의 비닐 포장재 대신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포장재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화약품-온코크로스

AI 기반 항암제 적응증 발굴

동화약품이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 소재 동화약품 연구소에서 신약 벤처 기업 온코크로스와 ‘인공지능(AI) 기반 항암제 신규 적응증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동화약품이 보유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온코크로스의 AI 플랫폼을 통해 신규 고형암 적응증을 도출할 계획이다. 해당 후보물질은 동화약품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여 항암신약 후보물질로 도출되었다.

/이세경 기자